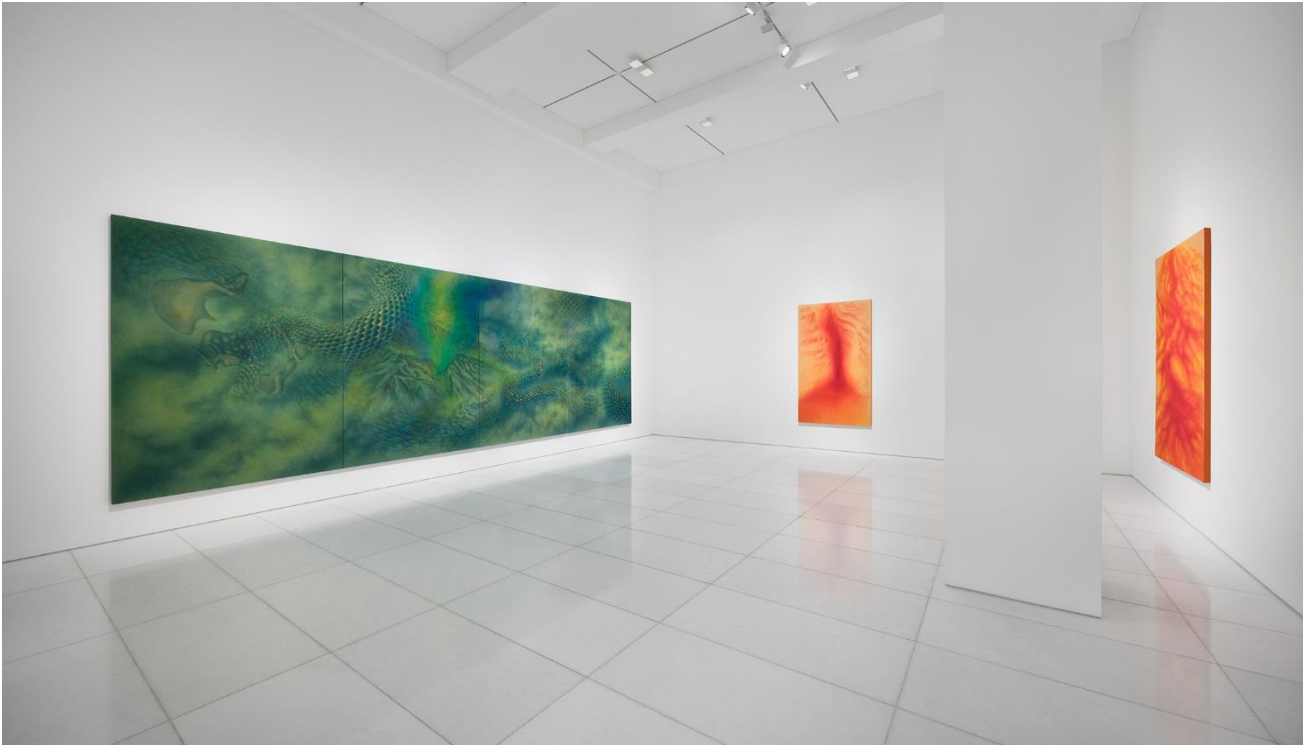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이은실, 《파고》
LEE Eunsil, *Surging Waves*



이은실, 《파고》(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전시전경.

참여작가	: 이은실(b. 1983)
전시제목	: 《파고》
전시일정	: 2025년 12월 17일(수) – 2026년 1월 31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율곡로 85) 1F, B1F
전시작품	: 회화 10점 ○ 전시기간 중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3F, 4F에서 이은실 작가의 과거 작품(2007-2024)을 함께 선보입니다.
[문의] 박미란 팀장 E. miran.park@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전시주제	-----	2-3
	3. 작품소개	-----	3-4
	4. 전시전경	-----	5-6
	5. 작가소개	-----	6
	6. 전시서문	-----	7-9
	7. 작가약력	-----	9-11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5년 12월 17일(수)부터 2026년 1월 31일(토)까지 **이은실**(b. 1983) 개인전 **《파고》**를 개최한다. 이은실은 동양화 기법에 기반하여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의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문명사회에서 억압되거나 은폐된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욕구를 응시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갈등을 회화의 은유적 언어로 변안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아라리오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첫 개인전이자 오래도록 숙고해 온 ‘출산’이라는 주제를 최초로 전면에 드러내는 자리이다. 개인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변곡점을 파도의 높이에 비유하는 전시명 아래 총 10점의 신작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1층과 지하1층에서 조명한다. 한편, 같은 기간 3층과 4층 전시장에서는 이은실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한 과거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통적인 관습과 사회 규범에 투항하는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묘사한 초기작부터, 점차 외부적 요인을 제거하고 내면의 정서적 파동에 주목하는 근작 화면까지 작품세계가 나아온 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

2. 전시주제

‘출산’이라는 사건 경유하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파동 그린 회화

첫 아이를 가졌을 당시 이은실은 주목 받는 젊은 작가로서 일찍이 미술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2006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학부를 졸업한 당해 인사미술공간의 《신진 작가의 수첩》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에는 《제29회 중앙미술대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2008년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에 참가했으며, 석사 학위를 취득한 2014년 리움미술관의 《아트스펙트럼 2014》 참여작가로 선정되며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그 사이 이은실은 두 번의 출산을 했다. 임신과 출산 전후로도 주요 미술관 전시에서 꾸준히 작품을 선보였지만, 작가 자신이 비로소 작업실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던 때는 2018년 경에 이르러서였다.

이은실은 첫 출산의 경험을 작업으로 풀어 내겠다는 계획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다. 스스로의 삶에 더없이 강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기에, 얼마간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주제를 마주할 시간 또한 필요했다. 충분한 세월을 지나온 지금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그 결과물들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이은실의 신작은 출산이라는 상징적 사건을 경유하는 개인의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변화를 다각도로 조망한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 존재가 겪어내는 감정의 높낮이를 보다 섬세하게 포착하는 시도이다.

가장 개인적인 기억,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자연

출산을 회고하는 화면의 빛깔은 찬란하다. 대형 화면들은 분출하는 화산이나 태풍 속 파도, 자욱한 안개와 같이 경이롭고도 위협적인 자연 현상을 연상시킨다. 태아의 탄생은 한편으로 그것을 잉태한 모체의 분열을

의미한다. 하나의 신체 내부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동하여 마침내 분리되는 물리적 과정뿐만 아니라, 자아의 일부를 육아에 분배하는 정신적 변화에 있어서도 그렇다. 출산은 생성과 파열, 주체의 해체와 존재의 확장을 양가적으로 의미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부단히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인 한편 개인의 삶 속에서 주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 사건이자 때로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여겨지는 실천이다. 이은실은 출산의 과정에 내재한 고통과 환희, 절망과 해방 등 입체적인 감정을 회화의 언어로 형상화한다. 가장 개인적인 내면세계로부터 길어 올린 감각과 정서, 환영과 기억들을 가장 보편적인 자연의 풍경 위에 중첩하는 방식으로서다. 그럼으로써 주제의 방점은 분만의 주체인 '여성'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모든 생명을 배태하는 '자연'으로 확장된다. 출산을 경유하는 연약한 인간의 고통은 거대한 자연의 풍경으로 치환됨으로써 순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한 세대가 지나고서야 타인 앞에 꺼내 놓은 작가 자신의 기억은 이제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외상에 공명하는 매개체로 탈바꿈한다.

3.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 LEE Eunsil.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대표이미지



이은실, <에피듀럴 모먼트 Epidural Moment>(2025), 종이에 수묵 채색, 244x7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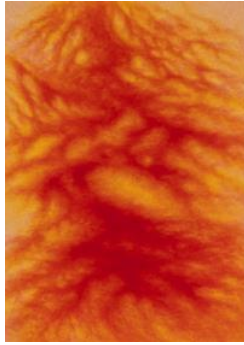


▲세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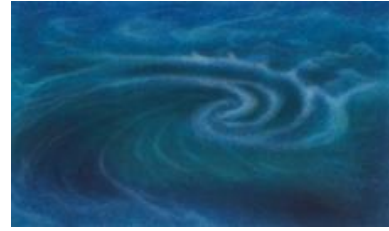
1층 전시장에 선보이는 <에피듀럴 모먼트>(2025)는 폭 7.2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회화 작품이다. 수묵 채색으로 섬세하게 묘사한 화면은 두터운 안개로 뒤덮인 부감 시점의 산맥 위에 거대한 뱀 또는 용의 모습이 중첩된 장면을 선보인다. 네 개의 화폭을 휘감은 동물의 금빛 비늘이 신비롭게 빛나는 가운데, 곳곳에 해체된 뼈의 형상이 드러난다. 해당 회화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통증 완화를 위한 경막 외 마취제가 신체에 투입되는 순간의 환각 경험을 소재 삼는다. 극심한 진통의 과정 가운데 주입된 환상적 기억은 출산이라는 행위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신체적, 정서적 마취 상태를 상징적으로 환기한다.



이은실, <멈추지 않는 혈곡>(2025)
종이에 채색, 207x120cm



이은실, <생사의 기로>(2025)
종이에 채색, 206x147cm



이은실, <전운>(2025)
종이에 수묵 채색, 150x250cm

이은실의 회화는 출산의 과정 속에서 겪은 폭발적인 응집과 분열의 힘을 경이로운 자연 현상에 비유하는 시각적 방법론을 취한다.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 자연에 중첩하는 시도를 통하여, 주제는 여성적 서사에 머무르는 대신 인간 존재의 육체적, 정신적 외상과 그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확장된다. <멈추지 않는 혈곡>(2025)은 신체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분출하는 혈액을 거대한 혈곡을 가로지르는 붉은 용암에 빚대어 묘사한다. <생사의 기로>(2025)는 그 용암이 대지 위로 혈관처럼 퍼져 나가는 장면을 보여준다. 살갗에 선명하게 불거진 핏줄의 위태로움을 연상시키는 화면은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모체의 격렬한 투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푸른 안료를 수없이 중첩하여 깊은 바다의 빛깔을 구현한 회화 <전운>(2025)은 수면 위 커다란 소용돌이를 품고 있다. 이내 찾아올 통증의 전조증상처럼, 풍랑의 도래를 예고하는 바다의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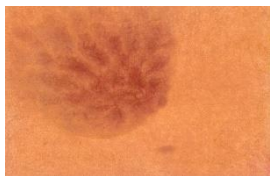
이은실, <고군분투>(2025)
종이에 수묵 채색, 130x162cm



이은실, <절개>(2025)
종이에 수묵 채색, 162x130cm



이은실, <흔적>(2025)
종이에 수묵 채색, 50x7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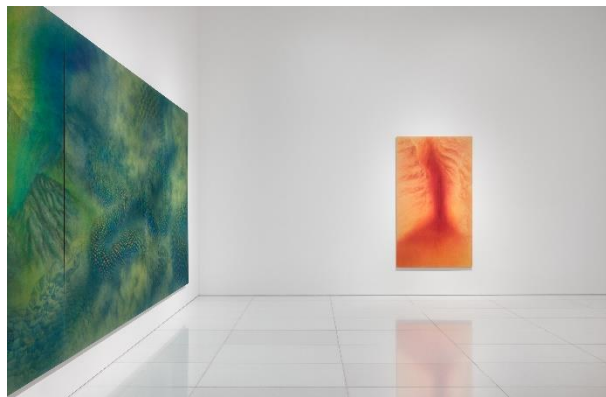


이은실, <넘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태도> (2025)
종이에 수묵 채색, 30x4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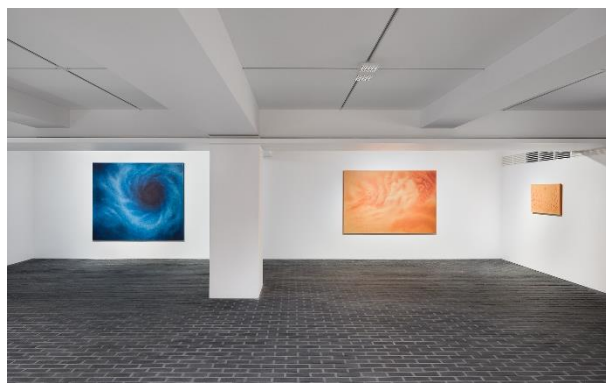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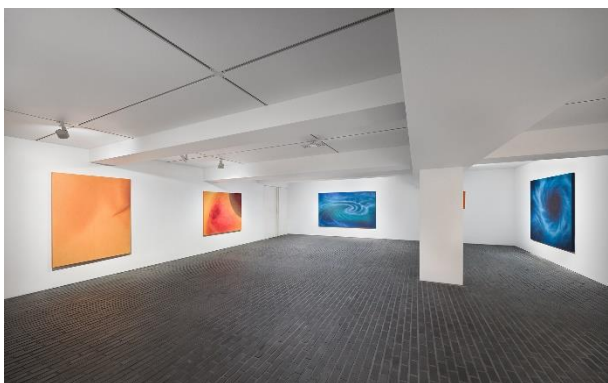
또 다른 작품은 출산의 순간에 분만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충격을 근접화면으로 보여준다. 출산에 의한 파열의 흔적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사라지거나, 또는 타인에게 드러내어 보이지 않는 부위에 은폐된다. 이은실은 그러한 상흔을 회화의 화면 위에 불러와 보다 가까이 대면한다. 일련의 화폭은 신체의 곳곳을 극도로 확대하여 구체적 형상으로 하여금 은유적인 추상이 되도록 한다. <고군분투>(2025)는 물리적 압력에 의하여 눈의 실핏줄이 터진 광경을 부분적으로 묘사하고, <절개>(2025)와 <흔적>(2025)은 각각 복부 절개 부위의 수술 자국과 튜브의 흔적들을 드러낸다. <넘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태도>(2025)는 산후 유선염을 소재로 하여 모성에 따라주지 않는 신체의 한계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4.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이은실, 《파고》(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1층 전시전경.





이은실, 《파고》(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지하1층 전시전경.

5. 작가소개



이은실 작가 프로필 이미지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이은실은 1983 년 출생으로 2006 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후 2014 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5), No.9 코크 스트리트(런던, 영국, 2024), P21(서울, 한국, 2021), 유아트스페이스(서울, 한국, 2019), 두산갤러리 뉴욕(뉴욕, 미국, 2016), 창강빌딩 1003 호(서울, 한국, 2013),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서울, 한국, 2010), 대안공간 풀(서울, 한국, 2009)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괴닉 텔레그램폰아트(베를린, 독일, 2025), 국립현대미술관(서울, 한국, 2024; 과천, 한국, 2008), 경기도미술관(안산, 한국, 2024; 2008), 일민미술관(서울, 한국, 2022), 서울시립미술관(서울, 한국, 2022; 2021), 금호미술관(서울, 한국, 2016), 리움미술관(서울, 한국, 2014), 아메리칸대학교 미술관(워싱턴 DC, 미국, 2016) 등이 개최한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인천아트플랫폼, 송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두산 레지던시 뉴욕, 쌈지스페이스 창작스튜디오 등 국내외 주요 레지던시에 입주하여 작업했다. 2007 년 《제 29 회 중앙미술대전》, 2008 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 2008》, 2014 년 리움미술관의 《아트스펙트럼 2014》 등 주요 전시 참여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19 년에는 제 19 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여 주목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송은, 아라리오컬렉션 등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6. 전시서문

범람하는 순간들

최희승 | 독립 큐레이터

저는 사람들을 광증으로 밀어 넣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광증으로 떠밀려 가는 사람들을 구해 내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책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 샬럿 퍼킨스 길먼, 「Why I Wrote The Yellow Wallpaper?」, 『더 포러너』(1913)¹

어째서 1890년대 단편 소설이 떠올랐을까. 이은실의 이번 개인전 《파고》에 대한 오랜 대화를 작가와 처음으로 나눈 뒤에 말이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사회학자인 샬럿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은 자신의 산후 우울증과 출산의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누런 벽지 The Yellow Wallpaper』를 1891년 발표한다.² 주인공은 산후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휴식 요법(The Rest Cure)을 처방 받고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인데, 소설은 그의 정신이 이상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휴식 요법, 즉 19세기 신경증 치료를 위해 널리 유행하던 의료 기법으로 모든 지적, 창의적 활동을 중단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간호사 이외의 사람과의 만남이 금지된 주인공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방의 벽지를 관찰하는 일이었다. 온종일 벽지 만을 바라보며 지내던 그는 이내 광적으로 벽지에 집착하게 되고 종국에는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다고 믿으며 손으로 갈가리 찢어발기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이은실은 14년 전을 잊지 않고 지냈다. 당시 그는 첫째 아이를 낳았고, 그로부터 5년 뒤에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러한 두 번의 시기는 그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전업 작가로서 다수의 전시에 초대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때였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두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공백을 가지다가 2018년 경 작업실로 '겨우 기어 나왔다'.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몸의 대미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겪는 출혈과 고통과 공포, 무엇보다도 덩그러니 부모가 되어버리는 급격한 상황의 변화와 곧바로 적응해야만 하는 혼란, 그것들을 소화할 새도 없이 이제 너는 엄마이니, 보석 같은 아이가 생겼으니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작가는 이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도 서랍 속에 일단 밀어 넣어 두고 화폭 앞으로 기어 나왔었다. 누런 벽지 속에 갇힌 사람이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그것을 힘주어 찢어내듯이.

이번 전시는 위와 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은실이 삶 속에서 간직해온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¹ 샬럿 퍼킨스 길먼, 차영지 역, 『누런 벽지』(1891), 서울: 내로라, 2019, p. 19. 마지막 문장은 전체 글의 문맥을 파악한 번역가의 의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² 위의 책, 2019.

되돌아보는 전시이다. 그러나 방금 전의 되돌아본다는 표현은 그가 말하려는 절박함을 모두 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언어 대신에 출품작에서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색과 형상들이 정면으로 그의 시간을 마주하게 만든다. 분만 시 압력으로 흰자위 전체에 핏줄이 터진 눈의 모습, 아랫배에 소낙비처럼 흥터로 남은 흔적, 화면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골반뼈와 자궁관, 태아나 태반, 폭발하고 있는 화산과 같은 표현들은 해산하는 주체의 전쟁터 같은 신체를 강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붉은 용암이 혈관처럼 퍼져 나가는 장면이나 푸른 소용돌이, 높은 파도가 휘몰아치는 듯한 모습 등은 그 응집된 에너지를 가시화 시킨다. 이것은 외부를 공격하기 위한 분노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떠올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상기되는 아픔과 몸의 파동, 피가 물든 장면들과 같은 회고에 대한 작가적인 표현으로 보는 편이 적합한 것 같다.

통증 완화를 위한 경막 외 마취제(무통주사)가 주입되는 순간에 대한 감각을 다룬 대형 신작 <에피듀얼 모먼트 *Epidural Moment*>(2025)는 가로 7.2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스케일과 수묵 채색으로 성실히 겹쳐 올린 화면으로 산통과 마약성 진통제의 환각이 뒤섞인 초현실 속 꿈같은 세계로 보는 이를 인도한다. 화면 전체를 휘감고 있는 뱀이나 용의 이미지,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신체 일부나 주사, 링거 관의 형상, 산꼭대기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름 같은 기운 등이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전체를 통해 더 깊게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집요한 표현과 압도적인 구성을 통해 작가가 걸어오는 대화이다. 극심한 진통의 순간 주입된 환상적인 환각 상태는 마치 14년 전 좋은 부모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상처를 뒤로 했던 이은실의 정서적인 마취 상태와 그리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연하게도 앞서 언급한 『누런 벽지』를 통해 길먼이 부정했던 휴식 요법 또한 경막 외 마취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마약성 신경 안정제 사용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주로 처방되었으며, 특별한 증세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들을 가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9세기 여성의 활동을 억압했고 동시대 여성의 출산을 수월하게 만드는 환각제의 공통점을 감지하는 것은 과도한 연결이 될까? 그 당시 길먼의 소설은 페미니즘 문학의 핵심적인 텍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양식적으로도, 주제적으로도 이전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은실의 《파고》의 그림들 또한 여성주의의 맥락 하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어렵게 즉답해 보자면 결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여성 작가들이 페미니스트라는 분류를 스스로 붙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구분에 대한 정의를 한 걸음 우회해서 감상하기를 권하고 싶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은실이 자연의 위협적인 현상을 그림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에 주목해 본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밀려들고 물러갔던 통각, 피와 살점이 흐르고 떨어져 나가는 감각들을 휘몰아치는 파도와 뜨겁게 흘러내리는 용암의 모습으로, 태풍의 눈을 닮은 소용돌이의 모습으로 그리거나,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욱한 안개, 일그러진 구름 등 거대한 자연의 모습에서 주로 찾아냈다. 갑작스러운 큰 파도, 매번 높이를 달리하며 나타나는 풍랑 중 하나처럼 그의 경험은 사실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인 경험이 신체 기관의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모습과 나아가 거대한 자연 현상의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작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 내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출산하는 여성에서 확장하여 몸을 처절히 사용하는 생명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파고》의 그림들은 출산이라는 사적이자 보편적인 순간이 지닌 강렬한 감각과 기억을 두고 특정한 이미지의 선택과 조합, 치밀한 표현, 표면의 깊이, 색채와 농담 등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은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간결한 것이다. 화면 깊이 안착하여 있는 하늘과 산맥의 고요함처럼 그의 그림들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바라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것도 바라보려 한다. 보는 이들을 겁주거나 경험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내가 겪은 트라우마가 유독 깊다고 하소연하거나 유세를 부리려는 것도 아니다. 그림으로써 단순히 출산 경험의 유무 차원이 아닌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의 가능성과 불가능의 차원으로 주제는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긴 시간을 통과하여 작가의 의지와 진정으로 그려진 단단한 그림들이 기어 나오게 되었다. “사람들을 광증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광증으로 떠밀려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³ 그리고 이제 그림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이다.

7. 작가약력

이은실

1983년 인천 출생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0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사

201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개인전

2025 파고,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4 트리처리 스킨, No.9 코크 스트리트, 런던, 영국

2021 언스테이블 디멘션, P21, 서울, 한국

2019 프레스 더 버튼!,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6 퍼펙틀리 매치드,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2013 부합, 서울시 중구 소공동 65-1 창강빌딩 1003호, 서울, 한국

2010 애매한 젊음,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한국

2009 뉴트럴 스페이스, 대안공간 풀,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2025 공생자 행성,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한국

³ 위의 인용문에서 재인용

- 언박싱 프로젝트: 메시지, 코닉 텔레그램폰아트, 베를린, 독일
- 2024 수묵별미(水墨別美): 한·중 근현대 회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서울, 한국
 알고 보면 반할 세계,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화가들의 밤: 구르는 연보, 합정지구, 서울, 한국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더페이지 갤러리, 서울, 한국
- 2023 요크, 실린더 투, 서울, 한국
 에로스, P21, 서울, 한국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목포, 한국
- 2022 다시 그린 세계: 한국화의 단절과 연속,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시적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날것,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난지엑세스 위드 팩: Mbps,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2021 13번째 망설임,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한국
 미드섬머, P21, 서울, 한국
- 2020 호랑이는 살아있다,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한국
- 2019 제19회 송은미술대상, 송은, 서울, 한국
 역단[易斷]의 풍경,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 2018 씬스페이스 1998-2008-2018: 여전히 무서운 아이들, 돈의문 박물관 마을, 서울, 한국
 일부러 불편하게,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 2017 메타-스케이프, 우양미술관, 경주, 한국
 낮익은 일상의 낮선 풍경, AMC 랩, 서울, 한국
- 2016 무진기행,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 프랑스
 한반도의 사실주의 미술, 아메리칸대학교 미술관, 워싱턴 DC, 미국
 앓는 법, 인디프레스, 서울, 한국
- 2014 아트스펙트럼 2014, 리움미술관, 서울, 한국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한국
- 2013 한국화의 반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검은 사각형, 갤러리101, 서울, 한국
- 2012 길목-라운드어바웃 전시 프로젝트 03, 누하동 256번지, 서울, 한국
 간헐적 위치 선정,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2011 모놀로그,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래디컬 드로잉, 퍼디 힉스 갤러리, 런던, 영국
 오픈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이상한 풍경, 갤러리엠, 서울, 한국
 사루비아 기금마련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인트로-2011: 국립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 2010 서교난장 2010: 회화(灰化)의 힘, KT&G 상상마당, 서울, 한국
- 2009 더블 판타지, 마루가메 겐이치로-이노쿠마 현대미술관, 마루가메, 일본
오픈스튜디오, 쌤지스페이스, 서울, 한국
온고지신(溫故知新),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어드레스 스페이스, 디갤러리, 서울, 한국
- 2008 젊은 모색 2008: 아이 엠 언 아티스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두렵지 않다, 그러나 말하자면 두렵다, 175 갤러리, 서울, 한국
경기미술프로젝트: 언니가 돌아왔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더 브릿지: The chART,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삶의 지침서, 175 갤러리, 서울, 한국
- 2007 제29회 중앙미술대전,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175 갤러리, 서울, 한국
- 2006 '열'전, 인사미술공간, 서울, 한국
신진 작가의 수첩, 인사미술공간, 서울, 한국

레지던시

- 2025-26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16기, 서울, 한국
- 2022-23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6기, 서울, 한국
- 2020 송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서울, 한국
- 2018-19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9기, 인천, 한국
- 2016 두산레지던시, 뉴욕, 미국
- 2011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 2008 쌤지스페이스 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주요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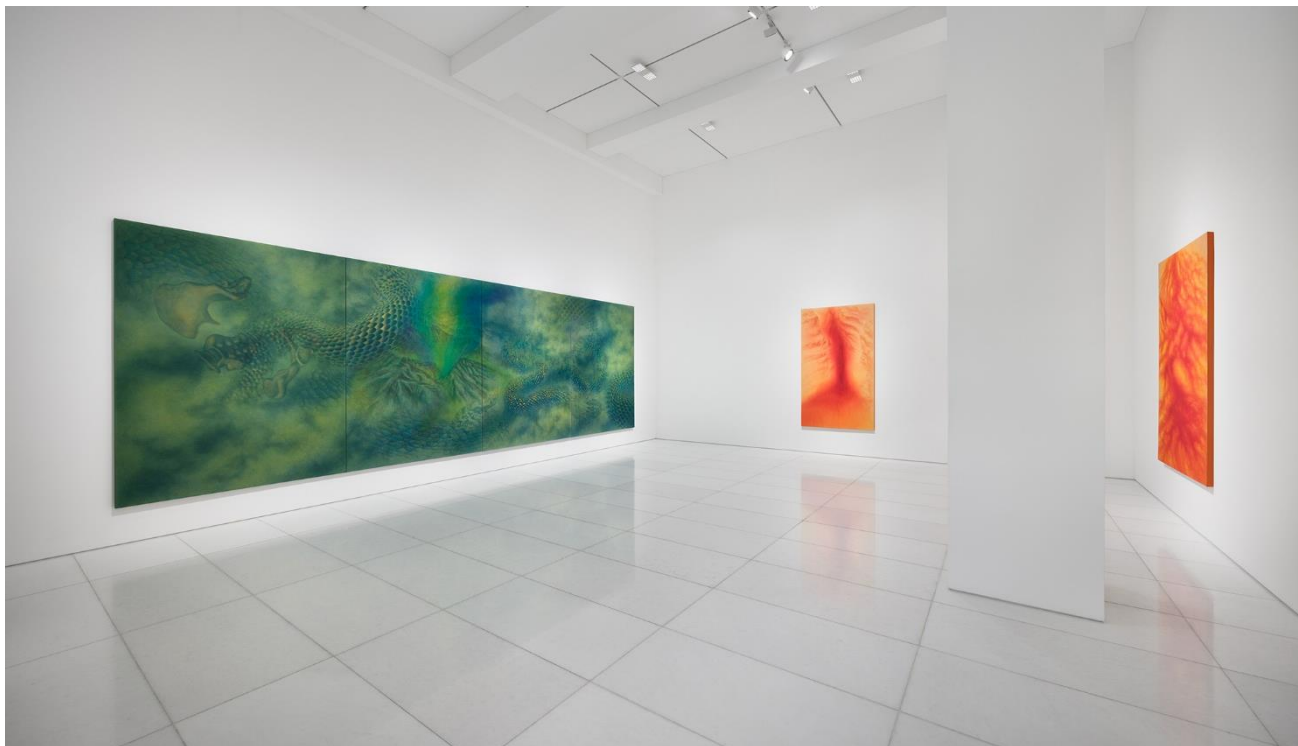
- 2019 제19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송은, 서울, 한국
- 2007 제29회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 한국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한국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국
-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 송은, 한국
- 아라리오컬렉션, 한국

ARARIO GALLERY SEOUL

LEE Eunsil

Surging Waves

Installation view of *LEE Eunsil: Surging Wave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Artist : LEE Eunsil (b. 1983, Korea)
Title : *Surging Waves*
Dates : 17 Dec 2025 – 31 Jan 2026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1F, B1F
Artworks : 10 Paintings in total

[Inquiry]

Miran PARK, Deputy Director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Table of Content	1. Exhibition Overview	-----	13
	2. Exhibition Theme	-----	13-14
	3. Artworks	-----	14-15
	4. Installation view	-----	16-17
	5. Artist Introduction	-----	17
	6. Essay	-----	18-20
	7. Artist CV	-----	20-21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presents ***Surging Waves***, a solo exhibition by LEE Eunsil (b. 1983), on view from December 17, 2025 (Wed) to January 31, 2026 (Sat). Working with techniques rooted in traditional Korean painting, LEE visually articulates the emotions that arise at the point where personal desire collides with social norms. Her practice attends to instinctual drives and impulses that are suppressed or obscured within civilized society, translating the psychological conflicts that emerge from them into a metaphorical language of painting. This exhibition marks the artist's first solo presentation at ARARIO GALLERY and represents the first occasion on which she brings to the forefront her long-contemplated theme of giving birth. Under a title that likens the major and minor turning points encountered in life to the rising and falling heights of waves, the exhibition presents 10 recent works on the ground floor and basement level of the gallery. Meanwhile, during the same period, the 3rd and 4th floors present a selection of the artist's earlier works produced between 2007 and 2024. From early works depicting the psychological conflicts of individuals resisting traditional customs and social norms, to more recent paintings that gradually strip away external factors to focus on inner emotional currents, this parallel presentation traces the trajectory of the artist's evolving practice.

2. Exhibition Theme

Paintings Trac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Undulations of Giving Birth

At the time she became pregnant with her first child, LEE Eunsil was establishing herself in the Korean art scene as a promising young artist. After graduating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6, she began her artistic career by participating in *Hand Book for New Artists* at Insa Art Space that same year, followed by *The 29th Joongang Fine Arts Prize* exhibition in 2007. In 2008, she took part in *Young Korean Artists 2008*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nd after earning her master's degree, she was selected as a participating artist in *ARTSPECTRUM 2014* at Leeum Museum of Art, gaining wider recognition. During this period, LEE gave birth twice. Although she continued to present her work in major museum exhibitions before and after pregnancy and childbirth, it was not until around 2018 that she felt she had truly "returned" to the studio as an artist.

LEE had long harbored the intention of translating the experience of her first childbirth into her artistic practice. As the event arrived as an overwhelming shock to her life, it required time—time to maintain a certain distance and to confront the subject with objectivity. Having allowed sufficient years to pass, she now presents the resulting works for the first time at ARARIO GALLERY SEOUL. The recent paintings featured in this exhibition examine, from multiple perspectives, the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s experienced by an individual through the symbolic event of giving birth. They represent an attempt to sensitively capture the fluctuations of emotion that an imperfect human existence undergoes when faced with the immense event of the birth of life.

The Most Personal Memory, the Most Universal Nature

The colors of the images reflecting on giving birth are radiant. Each scene evokes sublime yet threatening natural phenomena, such as erupting volcanoes, waves surging through a typhoon, or dense, enveloping fog. The birth of a fetus

simultaneously signifies the fragmentation of the body that conceived it—both in the physical process by which another life emerges from within a single body and ultimately separates from it, and in the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through which parts of the self are redistributed toward caregiving. Giving birth is an act that embodies both generation and rupture: the dissolution of the subject and the expansion of existence. It is at once an instinctive and natural process, and an event that marks a major turning point in an individual's life—at times shaped by social norms. LEE visualizes the complex emotions embedded in the process of giving birth—pain and joy, despair and liberation—through the language of painting. She layers sensations and emotions, visions and memories drawn from her most intimate inner world onto expansive and universal natural landscapes. In doing so, the emphasis of the subject shifts from “woman” as the agent of birth to “life” itself, and further toward “nature,” which bears all forms of life. By translating the fragile suffering of the human body experienced through childbirth into monumental natural landscapes, the works suggest the possibility of cycles and recovery. The artist's own memories—brought forth into the public sphere only after the passage of a generation—are transformed into a medium that resonates with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aumas of others.

3. Artworks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2025. LEE Eunsil.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Featured Images



LEE Eunsil, *Epidural Moment* (2025), Ink and color on paper, 244x7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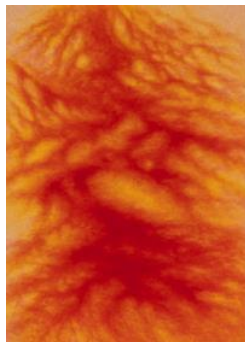


▲ Detail

Epidural Moment (2025), presented on the ground floor, is a large-scale painting measuring 7.2 meters in width. Executed in delicately rendered ink and color, the composition depicts an aerial view of a mountain range shrouded in dense mist, over which the image of a colossal serpent or dragon is superimposed. As the creature's golden scales coil across four joined canvases and shimmer with an enigmatic glow, fragmented bone-like forms intermittently emerge throughout the scene. The work takes as its subject the hallucinatory experience that occurs at the moment an epidural anesthetic—administered to alleviate labor pain—is introduced into the body. The fantastical memories injected amid the extremity of labor symbolically evoke a state of physical and emotional anesthesia imposed upon the individual through the act of giving birth.



LEE Eunsil, *The Unstopping Gorge* (2025)
Color on paper, 207x120cm



LEE Eunsil, *Between Life and Death* (2025)
Color on paper, 206x147cm



LEE Eunsil, *Stage 1 of Labor* (2025)
Ink and color on paper, 150x2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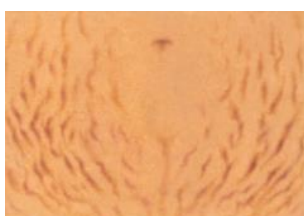
LEE's paintings adopt a visual methodology that likens the explosive forces of compression and rupture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giving birth to awe-inspiring natural phenomena. By overlaying personal experience onto universal images of nature, the focus expands beyond a specifically feminine narrative to encompas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auma of human existence,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covery. *The Unstopping Gorge* (2025) depicts blood continuously erupting from within the body, rendered as red lava coursing through a vast canyon. *Between Life and Death* (2025) extends this imagery, showing the lava spreading across the land like a network of veins. Evoking the precarious prominence of veins rising beneath the skin, these images symbolically reveal the violent struggle of the maternal body inevitably demanded for new life to emerge. Rendered through countless layers of blue pigment to achieve the depth and tonality of the deep sea, *Stage 1 of Labor* (2025) contains a massive whirlpool at its surface. Like a prodromal sign of pain yet to come, the seascape foretells the imminent arrival of a storm.



LEE Eunsil, *Struggle* (2025)
Ink and color on paper, 130x162cm



LEE Eunsil, *Incision* (2025)
Ink and color on paper,
162x130cm



LEE Eunsil, *Marks* (2025)
Ink and color on paper, 50x7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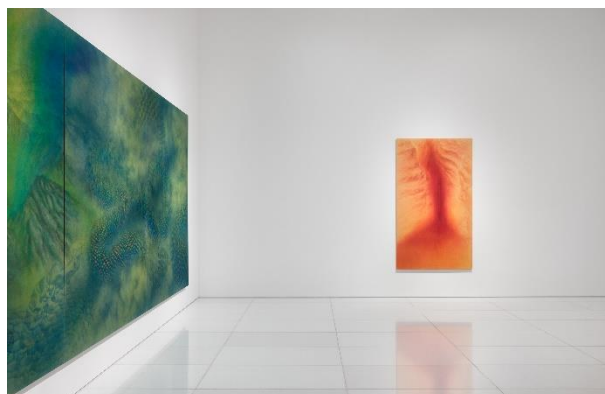


LEE Eunsil, *Mastitis* (2025)
Ink and color on paper,
30x4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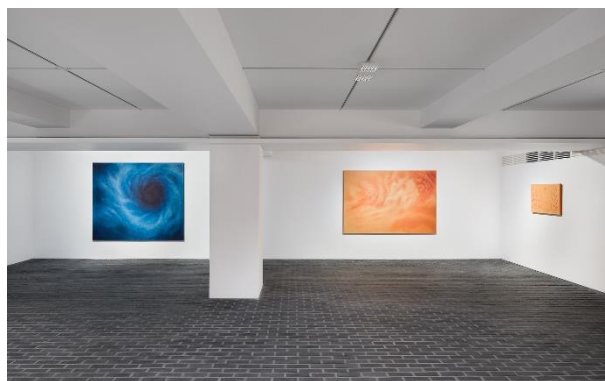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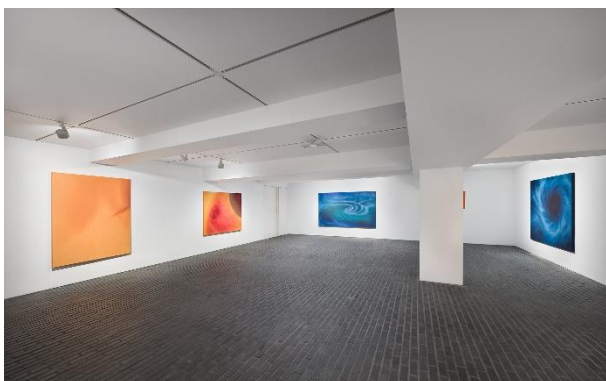
Another group of works presents close-up views of the physical shock imposed upon the subject of labor at the moment of birth. The marks left by rupture during childbirth may appear only temporarily before fading, or remain concealed in parts of the body not readily exposed to others. LEE brings such scars onto the pictorial surface, confronting them at close range. Across these of paintings, specific areas of the body are magnified to an extreme degree, allowing concrete forms to verge into metaphorical abstraction. *Struggle* (2025) partially depicts the rupture of capillaries in the eye caused by intense physical pressure. *Incision* (2025) and *Marks* (2025) reveal, respectively, the surgical scar left by an abdominal incision and the marks of stretched skin. *Mastitis* (2025) takes postpartum mastitis as its subject, addressing the limits of a body that does not fully comply with the demands of mother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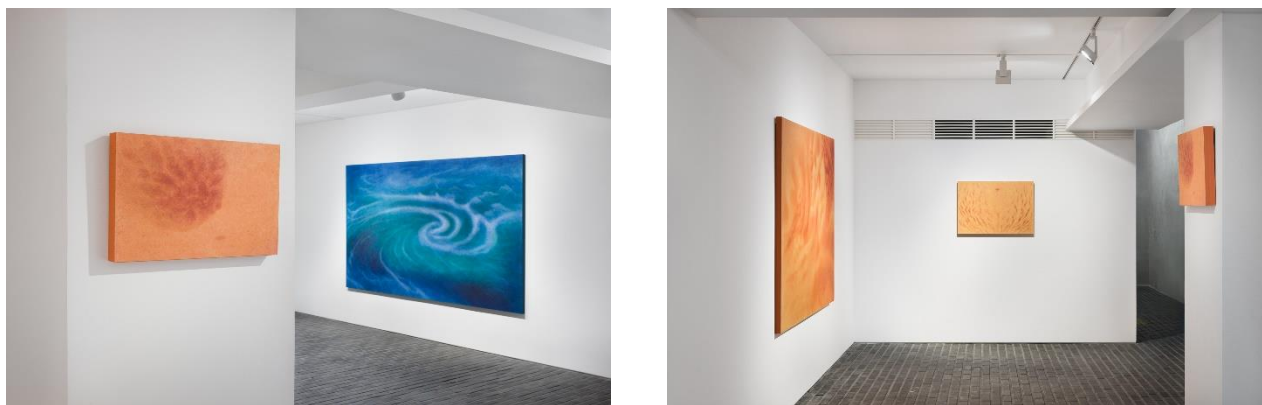
4. Installation view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Installation view of **LEE Eunsil: Surging Waves** at ARARIO GALLERY SEOUL (1F), Seoul, Korea, 2025.





Installation view of *LEE Eunsil: Surging Waves* at ARARIO GALLERY SEOUL (B1F), Seoul, Korea, 2025.

5. Artist Introduction



The artist LEE Eunsil.

LEE Eunsil was born in 1983 and received her BFA in Korean Pain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6, followed by an MFA from the same institution in 2014. S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No.9 Cork Street (London, UK, 2024), P21 (Seoul, Korea, 2021), U-jung Art Space (Seoul, Korea, 2019), Doosan Gallery (New York, US, 2016), Room 1003, Changgang Building (Seoul, Korea, 2013),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2010), and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2009). Her work has been presented in group exhibitions at König Telegrammfonamt (Berlin, Germany, 2025),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24; Gwacheon, Korea, 2008), Gyeonggi Museum of Art (Ansan, Korea, 2024; 2008),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2),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2; 2021),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6), Leeum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4), and the American University Museum (Washington, D.C., US, 2016), among others. She has participated in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s, including MMCA Changdong Residency, SeMA Nanji Residency, Seoul Art Space Geumcheon, Incheon Art Platform, Songeun Art Cube Studio, the Doosan Residency New York, and Ssamzie Space Studio. LEE was selected as a participating artist in major exhibitions such as *The 29th Joongang Fine Arts Prize* (2007), *Young Korean Artists 2008*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08), and *ARTSPECTRUM 2014* at Leeum Museum of Art (2014). In 2019, she received the Excellence Award at The 19th SONGEUN Art Award, drawing significant attention. Her works are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Seoul Museum of Art (Korea), Songeun (Korea), and the ARARIO Collection (Korea).

6. Essay

Surging Memories, Overwhelmed

CHOI Heeseung | Independent Curator

It was not intended to drive people crazy, but to save people from being driven crazy, and it worked.

– Charlotte Perkins Gilman, “Why I Wrote *The Yellow Wallpaper?*”, *The Forerunner* (1913)

I wondered why a short novel from the 1890s came to mind after my first extended conversation with LEE Eunsil about her solo exhibition, *Surging Waves*. American novelist and social theorist Charlotte Perkins Gilman (1860–1935) published *The Yellow Wallpaper* in 1891, a story based on her own experiences of postpartum depression and the traumatic aftermath of childbirth. The protagonist, prescribed the “Rest Cure” as treatment for postpartum depression, spends her days confined to a single room, and the narrative traces the gradual unraveling of her mind. The Rest Cure—a medical regimen widely practiced in the nineteenth century for the treatment of nervous conditions—required the complete cessation of intellectual and creative activity, strict devotion to domestic life, and the prohibition of social contact with anyone other than a nurse. Under these conditions, the only activity available to the protagonist is the observation of the wallpaper in her room. As she spends her days staring at the wallpaper, she develops an obsessive fixation upon it. Ultimately, convinced that a person is trapped within its patterns, she tears it apart with her bare hands—bringing the story to its unsettling conclusion.

LEE has carried the memory of fourteen years ago with her. At that time, she gave birth to her first child; five years later, she delivered her second. These two periods coincided with a moment when, after completing her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ies, she began to establish herself as an artist and gain recognition through invitations to numerous exhibitions. According to the artist, both experiences delivered profou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shocks. After an unavoidable hiatus brought on by childcare, it was not until around 2018 that she “finally crawled back” into the studio. No one had explained in detail the damage inflicted upon the body by pregnancy and childbirth—the bleeding, pain, and fear endured in the process of giving birth; above all, the abrupt transformation of suddenly becoming a parent, the confusion of having to adapt immediately, and the social atmosphere that insists one must simply endure it all, now that you are a mother, now that you have been given a jewel-like child. The artist remembers these experiences vividly, yet for a long time she pushed them into a drawer and crawled back toward the canvas—much like the figure trapped behind the yellow wallpaper, tearing at it with force in an attempt to escape to the outside.

The exhibition revisits the experience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that LEE has carried with her throughout her life, tracing a trajectory from past to present. Yet the word “revisiting” alone falls short of conveying the urgency of what the artist seeks to articulate. Rather than relying on such language, the newly adopted colors and forms that emerge in the recent paintings confront that period of her life more directly. Images such as an eye whose sclera is entirely ruptured by blood vessels under the pressure of labor; scars scattered across the lower abdomen like a sudden downpour; the pelvis and fallopian tubes depicted in a realistic manner; fetuses and placentas; and volcanic eruptions mid-explosion all speak

forcefully of a body in labor as a battlefield. Scenes in which red lava spreads like veins, or deep blue whirlpools and towering waves surge and collide, visualize the condensed energy released through these experiences. This energy is not so much an expression of outward-directed anger as it is an artistic rendering of recollection itself—of pain that resurfaces all at once when remembered, of bodily undulations, and of blood-soaked scenes that return in overlapping waves of memory.

Epidural Moment (2025), a large-scale painting addressing the sensory experience of the moment when an epidural anesthetic—administered to alleviate labor pain—is injected, draws viewers into a dreamlike, surreal world where labor pain and the hallucinations induced by narcotic analgesics intertwine. Spanning 7.2 meters in width, the work is meticulously built through layered applications of ink and color. Images of serpents or dragons coiling across the entire surface, directly legible bodily fragments, syringes and IV tubes, and cloud-like plumes erupting from a mountaintop crater immediately arrest the viewer's attention. Yet what can be felt more deeply through the painting as a whole is the conversation the artist initiates through her insistent imagery and overwhelming composition. The hallucinatory state induced at the peak of labor pain appears to function as a confession: it mirrors, not unlike, the emotional anesthesia LEE once experienced fourteen years ago, when she set her wounds aside in order to begin a life as a good parent.

Coincidentally, the Rest Cure that Gilman so forcefully rejected in *The Yellow Wallpaper* is also known to have been administered, in most cases, in conjunction with narcotic sedatives—much like epidural anesthesia. It was prescribed predominantly to women rather than men, and at times employed even in the absence of clear symptoms, under the pretext of rendering socially active women more domestic. Would it be an overextended comparison to detect a shared logic between a nineteenth-century medical practice that suppressed women's activity and contemporary anesthetics that ease the process of giving birth through hallucinatory effects? Gilman's novel went on to become a foundational text of feminist literature. Should LEE's paintings in *Surging Waves*, which mark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her earlier work both formally and thematically, likewise be viewed within a feminist framework? If pressed to answer this question directly, one could hardly say no. Yet, just as many women artists have chosen not to label themselves as feminists, I would suggest approaching such classifications with a degree of indirection—allowing the works to be encountered without prematurely fixing them within a single interpretive category.

From a more macroscopic perspective, attention may be drawn to the way LEE pulls threatening natural phenomena into her paintings. The sensations she experienced—waves of pain surging and receding, blood and flesh flowing and tearing away—are translated into images of crashing waves and molten lava pouring downward in heat, into whirlpools resembling the eye of a typhoon, or into dense fog and distorted clouds erupting from a volcanic crater. These visceral memories are most often rendered through the forms of overwhelming nature. Like a sudden towering wave, or one among many tempests that rise each time to a different height, her experience is in fact singular and specific. Yet as this private experience extends into concrete and universally recognizable images of bodily organs, and further into representations of vast natural phenomena, it becomes clear that the direction the artist points toward does not remain confined within the self. The subject expands beyond the woman who gives birth, toward life itself—life understood as a being that uses the body to its very limits.

In this way, the paintings in *Surging Waves* render the intense sensations and memories embedded in the private yet universal moment of giving birth through the careful selection and combination of images, meticulous execution, depth of surface, and nuanced gradations of color and tone. Through this process, the message LEE seeks to convey is, in fact, concise. Like the stillness of the sky and mountain ranges settled deep within the pictorial space, her paintings attempt to look outward—by first confronting and regarding the artist’s own pain, they seek to regard that of others as well. These works are not intended to intimidate viewers or to flaunt experience, nor do they lament or boast that the trauma she endured was exceptionally profound. In doing so, the focus shifts away from the mere question of whether one has experienced childbirth, toward the broader terrain of the possibility—and impossibility—of empathy for human suffering itself. It is through this approach, forged over a long passage of time, that these resolute paintings have finally crawled out, drawn forth by the artist’s will and sincerity: “not intended to drive people crazy, but to save people from being driven crazy.”⁴ And now, the paintings will do their work.

7. Artist CV

LEE Eunsil

Born in 1983, In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Education

- 2006 BFA Oriental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2014 MFA Oriental Pai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 2025 *Surging Waves*,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4 *Treachery Skin*, No.9 Cork Street, London, UK
- 2021 *Unstable Dimension*, P21, Seoul, Korea
- 2019 *PRESS THE BUTTON!*, UARTSPACE, Seoul, Korea
- 2016 *Perfectly Matched*, Doosan Gallery, New York, US
- 2013 *Coincidence*, 1003ho Chang Gang Bldg, Seoul, Korea
- 2010 *Peripheral Youth*,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 2009 *Neutral Space*,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 2025 *Symbiotic Planet*, SFAC Seoul Art Space Geumcheon PS333, Seoul, Korea

⁴ Gilman (1913).

- Unboxing Project: Message*, König Telegraphenamt, Berlin, Germany
- 2024 *The Modern and Contemporary Ink Ar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oksugung), Seoul, Korea
- Worlds Beyond Extraordina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Connecting Bodies: Asian Women Artis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Painter's Night: Rolling Chronicles*, Hapjungjigu, Seoul, Korea
- The Weird And The Eerie*, The Page Gallery, Seoul, Korea
- 2023 *Yolk, Cylinder Two*, Seoul, Korea
- Eros*, P21, Seoul, Korea
-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2023*, Nojeokbong Art Park Art Museum, Mokpo, Korea
- 2022 *Korean Traditional Painting in Alter-age*,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 The Poetic Collec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The Raw*,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Nanji_Access with PACK: Mbps*,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21 *The 13th Hesitation*,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Midsummer*, P21, Seoul, Korea
- 2020 *Tiger Lives*, Coreana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9 *SONGEUN Art Award*, SONGEUN, Seoul, Korea
- Scene Running Opposite Destiny*, Zaha Museum, Seoul, Korea
- 2018 *SSamzie Space 1998-2008-2018: Enfant Terribles, As Ever*, Donuimun Open Creative Village, Seoul, Korea
- Discomfort On Purpose*,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7 *Meta-scape*, Wooya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ju, Korea
- Up Close Yet Unfamiliar*, AMC Lab, Seoul, Korea
- 2016 *Journey to a Fluid Island*, Kumho Museum, Seoul, Korea
- Made in Korea*,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 Realist Art of the Korean Peninsula*, American University Museum, Washington DC, US
- Way of Sitting*, Indipress, Seoul, Korea
- 2014 *ARTSPECTRUM 2014*, Leeum Museum of Art, Seoul, Korea
- Today's Salon*, Common Center, Seoul, Korea
- 2013 *Beyond Korean Painting*, Seoul Museum of Art (Buk-Seoul), Seoul, Korea
- Black Square*, Gallery 101, Seoul, Korea
- 2012 *Corner-roundabout Exhibition Project 03*, Nuha-Dong 256, Seoul, Korea
- Sporadic Positioning*,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11 *Monologues*,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UK
- Radical Drawing*, Purdy Hicks Gallery, London, UK
- Open Studio*,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Korea
- Strange Landscape*, Gallery EM, Seoul, Korea
- Thinking of Sarubia*, Gana Art Center, Seoul, Korea

Intro–2011,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Korea

2010 *Seogyo Nanjang 2010: Power of Painting*, KT&G Sangsangmadang, Seoul, Korea

2009 *Double Fantasy*, Marugame Genichiro-Inoku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rugame, Japan

Open Studio, Ssamzie Space, Seoul, Korea

Ongojishin, Gana Art Center, Seoul, Korea

Address Space, DIE Galerie, Seoul, Korea

2008 *Young Korean Artists 2008: I AM AN ARTIS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I'm Not Afraid, so to Speak, I'm Afraid., Gallery 175, Seoul, Korea

Enni Is Back,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Seoul, Korea

The Bridge: The chART, Gana Art Center, Seoul, Korea

A Guide for Life, Gallery 175, Seoul, Korea

2007 *The 29th JoongAng Fine Arts Prize*,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People Don't Even Know What They Have in Their House, Gallery 175, Seoul, Korea

2006 *'Yeol' Jeon*, Insa Art Space, Seoul, Korea

Hand Book for New Artists, Insa Art Space, Seoul, Korea

Residencies

2025-26 The 16th SFAC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2022-23 The 16th SeMA Nanji Residency, Seoul, Korea

2020 SONGEUN Artist Studio, SONGEUN, Seoul, Korea

2018-19 The 9th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Incheon, Korea

2016 DOOSAN International Residency, New York, US

2011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Korea

2008 Ssamzie Space Studio Program, Seoul, Korea

Selected Awards

2019 Excellence Prize, The 19th SONGEUN Art Award, SONGEUN, Seoul, Korea

2007 The 29th JoongAng Fine Arts Prize, JoongAng Culture Media Corporation, Seoul, Korea

Public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Government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Korea

SONGEUN, Korea

ARARIO Collection, Korea